힐러리 美 민주 대선후보 확정…“유리천장 깰 일만 남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188년 역사 첫 여성 후보 배출
트위터엔 ‘역사’만 써 소감 밝혀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민주당 188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데 대해 “유리천장에 지금껏 가장 큰 금을 냈다”고 말했다.

미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의 농구경기장 ‘웰스파고 센터’에서 진행된 이틀째 전당대회 종료 직전 대형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낸 클린턴 후보는 뉴욕에서 생중계로 연결한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클린턴 후보는 특히 역대 남성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슬라이드 식으로 연이어 공개된 뒤 마치 유리 천장이 깨지듯 스크린이 깨지는듯한 상황에서 등장해 더욱 극적인 분위기가 연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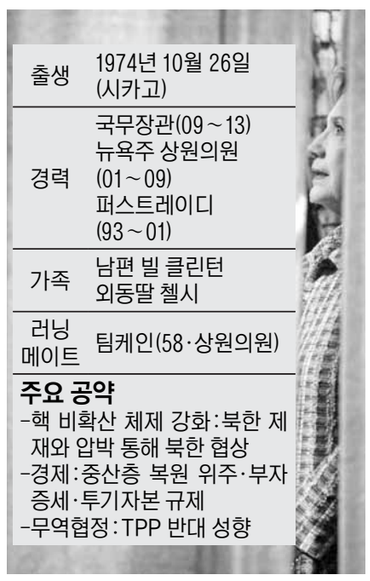
클린턴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힌 뒤 “오늘은 당신의 승리이고 당신의 (영광된) 밤”이라면서 “만약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이 순간을 지켜보는 어린 소녀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아마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겠지만, 다음 차례(여성 대통령)는 바로 여러분 중 한 명’이라고…”라며 감격의 순간을 표현했다. 클린턴 후보는 자신의 왼쪽에 서 있는 어린 소녀의 어깨를 한 손으로 살짝 감싼 채 메시지를 전했다.

앞서 대선후보 지명 직후 클린턴 후보는 트위터에서 ‘역사’(history)라는 함축적인 단어 하나로 무한한 기쁨과 영광의 소감을 내비쳤다. 미 주요 정당 역사상 첫 여성후보 선출에 대해 클린턴 후보 스스로도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클린턴 후보는 특히 대의원 공개투표인 ‘롤 콜’(roll call·호명) 절차 막판에 경선 라이벌이었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더 이상의 투표를 중단하고 힐러리 클린턴을 대선 후보로 지명할 것을 제안한다’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게시하면서 그 밑에 ‘함께 하면 더 강하다’(Stronger together)는 자신의 대선 슬로건을 달았다. 경선 과정에서 쌓인 갈등과 앙금을 씻어내고,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민주당 지지세력이 단합하자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클린턴 후보는 롤 콜 투표가 시작되자 “역사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클린턴 후보의 이날 유리천장 언급은 8년 전의 발언과 비교되면서 지지자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끌었다. 클린턴 후보는 8년 전인 2008년 경선 당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배한 직후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여러분 덕분에 (유리천장에) 1800만 개(경선 득표수)의 금이 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출생	1974년 10월 26일 (시카고)
경력	국무장관(09~13) 뉴욕주 상원의원 (01~09) 퍼스트레이디 (93~01)
가족	남편 빌 클린턴 외동딸 첼시
러닝 메이트	팀케인(58·상원의원)

주요 공약
- -핵 비확산 체제 강화:북한 제재와 압박 통해 북한 협상
- -경제:중산층 복원 위주·부자 증세·투기자본 규제
- -무역협정:TPP 반대 성향

여성 의원들도 힐러리 지지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행사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등 여성 하원의원들이 무대에 등장해 힐러리를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 대의원의 과반이 힐러리를 지지, 미 주요 정당 역사상 최초 여성 대선 후보를 탄생시켰다. /연합뉴스

■ 시상식이야? 힐러리 ‘지원사격’ 총출동

성조기 옷 입은 메릴 스트립

아내와 키스하는 샌더스 의원

‘부창부수’ 빌 클린턴

원조 ‘걸크러쉬’ 알리시아 키스

IS, 프랑스서 성당 테러…‘종교 전쟁’ 부채질

지난해 130명이 숨진 파리 테러의 배후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26일(현지시간) 오전 프랑스의 한 성당에서 테러를 저질렀다. IS가 기독교를 직접 대상으로 삼아 테러를 벌인 것은 처음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IS는 선전 매체를 통해 범행을 자처했다. 이날 테러로 신부 1명이 숨지고 신도 1명이 크게 다쳤다. 범인 2명은 경찰에 사살됐다.

현지 경찰과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3분께 흉기를 든 괴한 2명이 프랑스 북부 루앙시 인근 생테티엔 뒤루브래 성당에 들어가 미사 중인 5명을 인질로 잡았다. 인질은 자크 아멜(86) 신부와 수녀 2명, 신도 2명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 기동대 BRI가 현장에 출동해 밖으로 나오던 범인 2명을 사살하면서 인질극은 끝났다.

내무부는 “어느 순간 범인들이 성당 밖으로 나왔고 그때 BRI가 범인을 사살했다”고 말했다. 범인들은 성당을 떠나면서 “알라 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아랍어)”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당에 침입한 괴한들은 아랍어로 신자들을 위협하며 미사를 집전하던 아멜 신부를 인질로 잡은 뒤 흉기로 목을 그어 살해했다. 신자 1명도 크게 다쳐 위태로운 상황이다. 1930년 생테티엔 뒤루브래에서 태어난 아멜 신부는 28세 때 사제 서품을 받았다. 10년 전 은퇴했지만, 성당과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뜻에서 미사를 집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신도는 “아멜 신부는 평생을 헌신한 분”이라며 “나이가 많았지만 언제나 활기찼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전했다.

현지 언론들은 범인들이 프랑스 대테러 당국에서 S급으로 관리되던 인물 들이고 적어도 1명은 지난해 IS에 가담하려고 시리아를 가려다 터키에서 체포된 뒤 프랑스에서 수감된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테러 가능성 때문에 올 3월 풀려날 때는 전자팔찌까지 채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인은 전자팔찌 때문에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만 외출이 허용됐다.

사건 발생 수 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테러 공격”이라면서 “IS에 충성을 맹세한 범인들이 범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프랑스에서 지속해서 테러를 벌여온 IS는 성당 등 종교시설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적이 있지만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IS가 서방 세계를 자극해 ‘종교 전쟁’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4월에는 IS와 연계된 알제리 학생이 파리 근교 성당에서 테러를 저지르려다가 사전에 붙잡힌 적도 있다.

교황청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접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터무니없는 폭력에 고통스러워 하고 경악했으며 희생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IS는 지난해 이후 프랑스에서 잇달아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파리 바타클랑 공연장과 카페 등 파리에서 동시 다발 테러를 저질러 130명이 숨졌다. 또 지난 14일 84명이 숨진 니스 트럭 테러도 범인과 IS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IS가 사건 배후를 자처했다. 니스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는 작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6개월 추가 연장해 테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日 여당 중진 ‘자위대 보유’ 헌법 위반 시인

일본 집권 자민당 중진인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목표하는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헌법 9조 개정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참의원 선거에 승리하면서 중·참의원 모두 개헌 발의 조건(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달성했지만, 일본의 무력 행사 등을 금지한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무라 부총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솔직히 말해) 개정하고 싶다”며 “9조 2항을 제대로 읽으면 자위대는 헌법위반이다. 고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정하고 싶지만 가능하지 않다”며 “불가능한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헌법 9조는 ‘일본 국민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 및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1항), ‘이를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이다.

고무라 부총재의 자위대 관련 발언은 사실상 자위대가 군대 역할을 하는 만큼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어 그는 헌법 9조 개정이 불가능한 이유로 “아베 총리도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사카유신회는 ‘시기상조’라고 하며,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신중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자민·공명당과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하는 당 등 4개 정당이 개헌 추진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자민당을 제외한 3개 당이 반대 입장이며, 자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주 북구 대촌동 첨단산단 삼성전자 인근 대지 3,293㎡ 건물 1,495㎡ NPL추천물건 감정가 17억5천 ▶최저가 12억2천
- ★ [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10층중 10층 스카이라운지 상가 483㎡ 카페,7080, 맥주전문점 추천 감정가 8억7천7백 ▶최저가 6억1천3백
- ★ [상가]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인근 대로변 2층상가 토지 735㎡ 건물 449㎡ 감정가 11억8천7백 ▶최저가 8억3천1백
- ★ [상가] 무안군 남악신도시 메인 상업지구 3층상가 건물 238㎡ 카페, 식당, 병의원 추천 감정가 5억1천 ▶최저가 1억8천2백(36%)
- ★ [공장] 광주 광산구 안청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정가 57억6천7백 ▶최저가 25억8천3백(45%) 기아차공장인근
- ★ [상가]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1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 ★ [공장]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인근 신축 공장 유통시설활용가능 대지 5,585㎡ 건물 1,510㎡ 감정가 10억9천7백 ▶최저가 6억1천4백(56%)
- ★ [원룸]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건물 대지181㎡ 건물320㎡ 감정가 2억6천5백 ▶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투자 추천 물건
- ★ [상가]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음 ▶매매 55억원
- ★ [무인텔] 광주 북구 유동 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수익 위치좋음 ▶매매 20억원
- ★ [상가] 광주 수완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8백만원 ▶매매가 17억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상가]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2천3백 융18억 ▶매매 48억
- ★ [토지]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 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13억원
- ★ [상가]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융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 48억 (요양병원하가취득)
- ★ [토지]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 480㎡ 업무지원시설부지 코너위치 건폐 70% 용적 250% ▶급매가 4억4천(급매, 조정무)

수익형 추천
- ★ [모텔]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텔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깨끗 ▶매매 4억(융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 ★ [상가주택]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안집 월 440만원 융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펜션]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한라산 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4,000㎡ 주택28세대가능 수익형 28억선 교환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18개 투룸6개 쓰리룸6개 (융4억5천포함) 대로변 버스정류장옆 ▶매매13억5천
- ★ [상가]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담결정
- ★ [상가] 목포시 연산동 롯데수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상가주택]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947㎡ 지하,1층상가 사무실, 2~4층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환영 공인중개사 강천구 062-714-2251